

폭풍의 원인

행 27:1-20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토록 바라던 복음 전파의 목적을 안고 로마를 향해 출발합니다. 죄인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군대의 호송을 받으며 항해할 배와 음식을 제공받아 꿈을 이루기 위해 첫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이뤄지는 과정이 항상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큰 꿈을 꾸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욕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꿈이 이뤄지는 상황과 반대되는 난관에 처하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바울의 경우처럼 다른 방법으로 꿈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유는 하 목사님이 바로 꿈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꿈꾸는 교회와 함께 하는 꿈쟁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권세 있는 사람도 많을 수 있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시대에 따라 성장하기도 하고 퇴락하기도 하지만, 꿈이 있는 교회는 그 꿈을 이루기까지 계속 성장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풍랑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라골로 광풍'일지라도 말입니다.

믿는 자들이 희망 되어야

드디어 바울을 실은 배는 로마를 향해 출항합니다. 이 여행은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야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 도대의 백부장 율리올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리못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로마를 향하는 배에는 책임자 율리올란을 대표로 하는 군인들, 선주와 선장을 대표로 하는 선원과 상인들, 바울을 대표로 하는 죄인들 등 세 부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처지가 다르고 목적도 다르지만 같은 배를 탄 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먼저 백부장 율리올란이 리더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이 더해 갈수록 리더십은 바울에게 넘어갑니다.

세상이 평안할 때는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과 환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보석처럼 빛나는 법입니다. 영적 세계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세상의 것들이 힘이 되어주는 것 같지만, 어려울 때는 세상의 것들이 모두 헛되다는 사실을 인생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에서 주목을 끄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죄수 몇 사람”입니다. 이미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몸으로, 곧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사회 정의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로마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처벌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악한 마음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법을 세운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운 법은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만큼 깨끗하나 인간만큼 더럽습니다. 법이 통치의 수단으로 자리잡은 로마는 더 이상 법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이 로마의 야망을 채워주는 이데올로기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죄와 벌’에서 주인공은 돈 많은 노파를 죽이고 그의 돈을 갖습니다. 주인공의 논리에 의하면 자신이 한 일은 정당한 것이었지만, 일생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모여 집단으로 무장할 때 개인은 기계가 되어 초법적 행위를 자행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게 될 때, 한 집단에서 법보다 높은 하나님의 이름이 경시될 때 인간들은 기계로 전략해 버립니다.

사회는 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법보다 높은 차원의 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법은 인간 욕망의 도구가 되어 버립니다. 법이 법으로서 효능을 나타내기 위해선 사회를 붙잡고 있는 법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곧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그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누가 삭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처럼 일어날 때 세상에 희망이 생기고 방향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테두리 안에서 각종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행 배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만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그립바 왕이 무죄하다고 인정한 바울의 일행들도 죄인으로 취급받아 동승하고 있습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무가치하고 비생산적인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부당한 대우에도 마땅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에 의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의 질서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하고 야근을 자원하며 사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집회에 참석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고 일찍 퇴근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자신의 일을 완전하게 해 내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땀 흘리고 굶은 일에 앞장 선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고난이란 피하는 자에게는 강한 것이지만, 도전하는 자에게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로 핏박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땀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뵈닉스 출항 반대한 바울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아리스다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충성심 때문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사환이었습니다. 바울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던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자, 아리스다고는 동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죄인의 종은 죄인과 함께 여행할 수 있다는 관습에 따라 아리스다고는 자신의 귀를

뚫고 바울의 종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누가는 아리스타고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또 바울도 아리스타고를 '나와 함께 예수 안에 갇힌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안에서 자원해 사랑에 묶여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아리스타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리스타고가 되어 있습니까? 절망의 길에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있을 때 꿈은 이뤄집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걸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꿈을 거뜬히 이뤄내고 말 것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 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름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야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새아 성에서 가깝더라.”

시돈에서 다시 항해를 시작한 배는 역풍을 만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천신만고 끝에 미항에 도착합니다. 미항은 작고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오랜 기간 동안 머물기에 시설이 마땅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뵈닉스라는 큰 항구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이 때 바울이 뵈닉스로의 출항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위의 말씀에서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을 말하며 10월 초순 가을에 있는 절기입니다. 지중해 연안은 가을이 지나 겨울에는 강한 바람이 많이 부는 지형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본문에서 배는 두 달여 동안 꼼짝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리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많은 여행 경험으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판단보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은 정직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 앞에서 그 순리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항해할 것을 주장합니다. 11,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무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뵈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뵈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책임자요 결정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주장과 선장 및 선주의 주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는 항해 전문가인 선장 및 선주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뵈닉스로 향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닳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량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같은 배를 타고 한 공동체가 된 우리들을 광풍이 이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미항에 머물 것인가, 뵈닉스로 가서 겨울을 날 것인가 하는 선택에서 자연의 순리를 무시했습니다. 또 여행 중에 많은 항해 경험을 가진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마저 무시해 버렸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보다 선장 및 선주의 의견을 더욱 타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견해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미항까지 오는데 선장 및 선주의 의견이 선택되고 바울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위험천만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지식이나 능력보다 분별력과 통찰력이 우선합니다. 지식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사태의 심각성과 함께 미래를 생각할 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항상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때로 역풍이 불고 비상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삶의 방향을 선택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백부장의 일행들처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상시에는 상식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러나 비상 상태일 때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에 탄 일행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방향도 잃은 채 절망 상태에 던져졌습니다. 누구든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방향 감각을 잃고 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영혼을 지배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바울은 꿈을 갖고 희망을 선택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10가지 법칙’이라는 책에서 폴 피어셜은 암과 투쟁하면서 병원에서 겪었던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찾아와 피어셜에게 완치가 어렵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검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내린 진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피어셜은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별떡 일어나 “여보, 어서 여길 나가요”라고 외치며 남편의 몸에 꽂힌 주사 바늘을 뽑고 옷을 입혔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 건강에 아주 안 좋아요.” 아내는 남편을 끌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당황한 의사가 뒤따라오자,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쫓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요. 우리는 이 병원에서 나가 당신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여보, 진단과 판단을 혼동하지 마세요. 가망이 없다는 진단이 가망이 없다는 판단은 아니잖아요.” 피어셜은 아내의 말을 듣고 비록 의사가 바르게 진단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진단과 판단을 혼동해선 안됩니다. 절망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이뤄지지 않아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폭풍 속의 작은 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을 때,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새는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바람이 강해질 수록 더욱 악착같이 나뭇가지에 붙어 앉아서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새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작은 새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를 떨어뜨려 봐. 네가 아무리 강해도 내겐 날개가 있어.”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참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친 세상 한 가운데 있지만

태풍보다 강한 폭풍이 불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믿음의 날개를 펴서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